이재용, 말 대신 '정중동 행보'… 연말 뉴삼성 윤곽 기대

〈삼성전자 회장〉

취임 한 달, 별다른 메시지 없어 글로벌 위기 속 실리주의 경영 집중 사업·투자 등 연말께 구체화 전망

故이병철 회장 35주기 추도식 참석 CJ일가와 한자리… 화합모드 이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8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찾아 MLCC 원료 제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35주기 추도식이 열린 18일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후 별다른 메시지 없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보폭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 속 실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 연말 인사에서야 비로소 '뉴삼성'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에서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 35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었다.

올해 추도식은 삼성과 CJ도 모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과 함께 사촌지간인 이재현 CJ 회장 등 CJ그룹 관계자들과도 30분가량 함께 머물러있었다고 알려졌다.

과거 분쟁 탓에 2012년 이후 추도식에서도 만남을 피해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올해에는 불발됐지만, 이 회장이 이재현 회장 집에서 지내는 이병철 창업회장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선대회장이 시작했던 삼성과 CJ그룹간 분쟁이 이 회장 대에서 해소된 셈이다.

다만 이 회장은 이번에도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지난달 승진으로 새로운 '뉴 삼성' 사업 비전이나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달여간 이 회장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신 회장 취임 후 행보를 비춰보면 '상생 비전'이 첫번째 메시지로 풀이된다. 회장 승진 후 첫 행보로 광주 협력사를 방문한데 이어, 최근 부산에 삼성전기 FCBGA 공장을 찾으면서도 협력사 방문 일정을 이어갔다.

'JY 네트워크'도 본격 가동했다. 지난 주 이 회장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피터 베닝크 ASML CEO 등 기업가를 비롯해 빈 살만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와 마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도 만났다. MS와 ASML 등 기업과는 이미 깊은 친분을 유지하는 상태, 사우디에 이어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 국가에서도 삼성전자에 깊은 관심과 호의를 보이면서 글로벌 확대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 회장은 이어서 내년 초까지 해외 출장으로 바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하노이에 연구개발(R&D) 센터 완공식이 첫 해외 출장지로 유력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권을 포함한 글로벌 경영을 재가동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 이전에는 연중 절반 가까이를 해외에서 보냈었던 만큼, 해외 회장 취임 후 JY네트워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출장이 시급하다는 전언이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도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면서 실리주의 경영 방침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당시 승진과 관련해 "회사가 더 중요하다"며 우선 순위를 밝힌 바 있다.

이 회장 삼성 향방은 연말 인사에서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이 회장이 메시지를 낼 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사업은 물론이고 지배구조까지 대거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컨트롤타워를 맡을 조직이 신설될지 여부를 비롯해 미래 먹거리와 기존 사업 재편 등 여러가지 가능성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S&P 선정 '올해의 CEO'

'글로벌 메탈 어워즈'서 수상 동아시아 철강사 최초 '쾌거'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사진)이 '올해의 CEO'로 선정됐다.

포스코그룹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코모디티 인사이트'가 주관한 제10회 글로벌 메탈 어워즈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0일 공개했다.

S&P 글로벌 코모디티 인사이트는 세계 최대 철강·원자재·에너지 분야 정보 분석 기관이다. 2013년부터 철강, 비철금속, 희귀금속, 알루미늄 등 세계 금속산업과 광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의 CEO, 올해의 기업 등 17개 부문에 걸쳐 성과를 거둔 기업과 개인에게 시상하고 있다.

최 회장은 동아시아 철강사 중에서 이번 상을 처음으로 받게 됐다. 아울러 포스코그룹은 올해의 CEO 외에도 올해의 기업, 최우수 철강사, 올해의 딜 부문에서도 수상하며 4관왕에 등극했다.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3차례 최우수 철강사를 수상한 최초의 기업이 됐다.

최 회장은 "포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1968년 창립한 포스코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중 하나로 성장했다"며 "올해의 CEO 수상은 포스코그룹 임직원 모두의 헌신으로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포스코그룹과 중국 하강그룹의 합작법인 '하강포항기차판유한공사(하강포항)'는 '올해의 딜'을 수상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강판 시장이자 친환경 자동차 강판 시장의 각축장인 중국에서의 전략적 우위 선점을 인정받았다. /김재웅 기자